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2호

XXVI ANOC GENERAL ASSEMBLY SEOUL 2022

2022 제 26차 ANOC 서울총회 성료

김한빈 열린뉴스통신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밖은 찍지 마”...카타르, 언론 규제 나섰다

이두리 스포츠경향 기자

자격증 없이 방과 후 강사로 채용 후 체육지도자로 변신

리듬체조 C 강사의 양심 없는 돈벌이 ‘도마 위’

김영란, 박정한 프레시안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 상벌위원회

KPGA, 김한별에 벌금 10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 징계

이강래 헤럴드경제 기자

별별스포츠 94편

‘인종차별 반대’ 동참했다가 평생 배신자로 낙인 찍힌 백인의 사연

최희진 SBS 기자

인권단체, 대사관 앞 이란 정부 규탄 기자회견

“히잡 미착용 이란 선수 자진귀국 맞나”...해명 요구

박규리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2 제26차 ANOC 서울총회 성료

열린뉴스통신 2022.10.22
김한빈 기자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 제26차 ANOC서울총회(XXVI ANOC GENERAL ASSEMBLY SEOUL 2022)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203개 국가올림픽위원회(16개 온라인 참석) 대표단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종목별 국제연맹(IFs) 및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참가했으며,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각종 회의와 행사가 열렸다. 첫날인 18일 ANOC집행위원회 회의 및 대한체육회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ANOC총회 본 회의(19~20일), ANOC어워즈(19일)를 비롯하여 개최도시인 서울특별시 만찬(20일)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21일 ANOC워크숍을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ANOC총회 본 회의에서는 국제스포츠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ANOC는 개회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감사패를 전하며 성공적인 총회 개최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2일차 회의에서는 ANOC 회장 선거를 통해 로빈 미첼이 향후 4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ANOC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수석부 회장에는 셰이크 조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름을 올리는 등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됐다.

ANOC어워즈에서는 황대헌 선수가 '2022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남자선수상'을 수상했다. 황대헌 선수는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ANOC총회에서 이처럼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더 영광"이라며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2022년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남자팀'에는 스웨덴 컬링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여자팀'에는 캐나다 아이스하키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혼성팀'으로는 미국 스노보드팀(닉 바움가트너, 린지 자코 벨리스)'2022년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여자 선수'에는 중국 동계스포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에일린 구 '스포츠 커리어 상'은 네델란드 스케이트 영웅 �벤 크라머, 우수한 성과를 보인 NOC'에는 중국올림픽위원회 '올림픽 무브먼트에 대한 공로상'에는 크레이그 리디(전 IOC부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 날에 열린 ANOC워크숍에서는 국제스포츠계의 화두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워크숍은 ANOC총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세션으로 국제스포츠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2024년 1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와 ANOC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IOC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만찬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참가한 선수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ANOC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향후 열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역량과 외교력을 강화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 등 올림픽 운동 전파에 앞장서고자 한다.

“월드컵 경기장 밖은 찍지 마” 카타르, 언론 규제 나섰다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카타르가 대대적인 언론 규제에 나섰다.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말라는 것이 규제의 요지다. 월드컵 유치·준비 과정에서의 노동자 인권 탄압 실태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카타르 정부가 촬영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영국 국영방송 BBC, 민영방송 ITV 등은 이주 노동자를 수용하는 숙박 시설, 정부 청사, 대학, 예배당, 병원, 주거용 건물 및 개인 사업체에서 촬영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국내 유명 장소에서의 사진·비디오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특정 장소에서의 언론 취재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촬영 가능한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월드컵과 관련된 카타르 현지 상황을 심층 취재하는 것을 막았다.

카타르 정부는 이 규정에 “월드컵을 취재하는 방송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 개인 혹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규제 조치가 월드컵 기반시설 건설에 동원된 이주 노동자를 인터뷰하거나, 카타르의 LGBTQ+(성 소수자) 권리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카타르 당국은 지난 2015년 월드컵과 관련한 현지 인권 탄압 실태를 취재하던 BBC 기자들을 체포해 구금한 바 있다. 당시 새로운 이주노동자 숙소를 소개하는 총리 주관 미디어 투어에 초청된 4명의 BBC 기자들은 이주노동자 노동 실태에 대해 추가 취재를 하던 중 체포됐다. 그들은 심문을 받고 이틀 동안 구금돼 있다가 풀려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취재하던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 소속 기자 2명이 취재를 마치고 출국하려다 체포돼 36시간 동안 구금됐다. 체포 직전 이 기자 중 한 명은 NRK 뉴스에 현장 연결로 출연해 “일부 노동자들이 끔찍하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타르 최고위원회는 이러한 가디언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여러 지역·국제 언론이 카타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언론인이 카타르에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스포츠 매체 '마르카'는 지난 15일 “대부분의 매체는 월드컵이 열리는 국가의 삶이 어떤지를 담아내기 위해 현지에 기자를 파견한다. 카타르의 이와 같은 언론 규제는 카타르에서의 삶을 취재하려는 마르카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의 인권 단체 '페어스퀘어'의 활동가 제임스 린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의 언론 규제가 “미디어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광범위한 제한”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듬체조 C 강사의 양심 없는 돈벌이 '도마 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정부는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한 부정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세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심 없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부적절하게 돈을 챙기고 있는 어느 리듬체조 강사의 비위 백태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 분과 위원장과 대구광역시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로 활동 중인 C강사의 양심 없는 돈벌이 수단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리듬체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지난 2019년 대구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로 취업해 현재도 해당 학교의 리듬체조 방과 후 학습 '개인위탁용역'을 맡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 J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취업규칙과 직무는 대구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서를 따르게 돼 있다. 대구 J중학교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2022년까지 리듬체조 방과 후 학교 특별과정 개인위탁 강사공모에 따르면, J중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강사는 월~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2시간) 시간당 30,000원, 주당 10시간 300,000원 월평균 1,200,000원의 보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C강사는 형식적으로는 방과 후 강사지만 실제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둔갑해 리듬체조부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종료한 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이 학교 리듬체조 학생선수를 지도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 고등·초등생들도 지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C강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J중학교가 편법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치 않은 방과 후 강사로 C씨를 위탁 공모한 후 실질적으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에 무게가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측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부 학부모의 제보와 그 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했던 코치 등의 제보에 따르면 C강사는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방과 후 강사 신분이면서도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C씨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교습비를 학부모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 해 입금받는 수법 등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교습비를 챙겼다. 물론, 소득신고나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의 없었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공공 국가시설인 J중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관례적으로 열고 이 과정에 학부모한테 명품도 선물 받았다. C씨는 또 J중학교 리듬체조부 내부운영과 관련해 그 사실이 외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의 수법으로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을 J중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들여 교습행위를 일삼는 등 공교육 현장을 철저히 자신의 영리수단으로 이용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C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반론요구 전화를 걸었지만 "자신은 취재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된 학부모 A씨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공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 선수를 볼모로 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라며 학교 당국의 책임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에 진정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실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C씨가 활동 중인 J중학교 리듬체조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 교육 당국과 체조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한체조협회도 대한체육회의 조사지시에 따라 오는 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KPGA, 김한별에 벌금 10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 징계

한국프로골프협회 상벌위원회(위원장 강범석)가 경기 중 포어 캐디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김한별(26)에게 벌금 10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PGA는 24일 경기도 성남 서판교의 KPGA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한별에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김한별이 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벌금 1000만원과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파이널스테이지에서 포어 캐디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실질적인 징계는 12월 7일 열리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된다. 또한 출장 정지의 벌이 없어 김한별이 올시즌 잔여 경기에 출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김한별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이미 오는 11월 3일부터 나흘간 경북 선산의 골프존카운티 선산 골프장에서 열리는 골프존-도레이오픈에 출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김한별은 30분 간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포토라인에 섰다. 김한별은 "먼저 저의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질책과 꾸지람을 깊이 새기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성숙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앞으로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한별은 지난 2일 경기도 여주의 페럼 클럽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4라운드 도중 4번 홀에서 티샷한 볼을 찾지 못한 포어 캐디에서 폭언과 욕설을 해 이날 상벌위에 회부됐다. 포어 캐디는 볼의 낙하 지점 근처에 머물며 선수들이 친 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기진행요원이다.

김한별은 KPGA의 징계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도 받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진술을 듣고, 참고인 확인 등을 거쳐 피신고인의 인권 침해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나도!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위대한 은메달리스트

스포츠머그의 스포츠야사 토크 프로그램 '입으로 터는 별별스포츠'! 과거 스포츠에서 있었던 별의별 희한하고 기괴했던 일들을 스포츠머그 최희진 기자와 스포츠기자 경력 32년인 SBS 스포츠취재부 권종오 기자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조국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힌 올림픽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남자 200미터 시상식 때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미국의 두 흑인 선수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겁니다.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블랙파워 설루트(Black power salute)'라 불리는 침묵시위로,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을 규탄한 겁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모든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두 선수를 올림픽 선수촌에서 추방했고,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이들의 선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당시 미국 출신의 백인인 브런디지 IOC 위원장은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니그로들의 추태"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메달리스트였던 호주의 피터 노먼 역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노먼은 백인이었지만 두 선수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뜻을 같이 하며 시상식 때 가슴에 OPHR(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먼은 조국 호주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당시 호주에서도 '백호주의'라는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 주류 사회에서는 흑인들의 뜻에 동참한 노먼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먼의 시련은 스미스와 카를로스 두 미국 선수들보다 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스미스와 카를로스는 이후 흑인 민권운동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지만, 노먼은 조국 호주에서 오랜 기간 멸시와 냉대에 시달리다 2006년 10월 64세를 일기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스미스와 카를로스는 노먼의 장례식에 참석해 관을 운구했습니다. 노먼이 세상을 떠나고 6년 뒤인 2012년 8월 호주 연방의회는 노먼에게 "호주인들의 처사가 가혹했다"며 뒤늦은 사과를 했고, 호주 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노먼에게 사후 유공 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메달리스트 피터 노먼의 이야기 별별스포츠에서 감상하세요.

“히잡 미착용 이란선수 자진귀국 맞나” 해명 요구



시민·인권단체들이 최근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던 이란 클라이밍 선수 엘나즈 레카비(33)의 강제 귀국조치 의혹을 해명하라고 이란 정부에 촉구했다.

16개 단체 연대체인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은 19일 서울 용산구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카비 선수의 SNS에 자의로 귀국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한국 일정이 남아있었고 선수 개인이 마음대로 일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에서는 레카비가 공항에서 곧바로 정치범수용소인 에빈 교도소로 이동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이는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 선수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출신 여성 박씨마는 "레카비는 이란에서 히잡 문제로 시위하고 죽어가는 여성들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히잡을 벗고 경기했다"며 "그녀의 행동이 이란의 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경기를 주최하면서 선수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한국은 생명·신체 위험이나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로 (선수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선수가 출국하는 과정의 모든 기록과 영상자료를 확보해 위법한 강제송환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 4명은 히잡 시위에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도중 이란대사관 측이 차량을 이용해 행사를 방해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사관 측은 입차·출차를 이유로 기자회견이 열린 주차장 입구를 한동안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이 중단되자 참가자들이 차량을 현수막으로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착용 불량을 이유로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0~16일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레카비 선수가 16일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귀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강제귀국 의혹이 불거졌다.

전날 레카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히잡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나의 부주의였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물에는 "현재 팀원들과 함께 예정된 일정에 따라 귀국길에 올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간 스포츠 소식

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201539079107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스포츠윤리센터, 장애체육인 인권보호 앞장...실태조사 진행

<https://www.ebn.co.kr/news/view/1550962/?sc=Naver>

경일대, 드론 스포츠단 창단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41920/>

노원구, '수락산 스포츠타운' 문 연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249398i>

"소액구매X한경기 구매" 스포츠포토 건전하게 즐기는 법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10240100158690010178&servicedate=20221024>

[게시판] 한국e스포츠협회 "3급 e스포츠심판 연수 25명 수료"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111700017?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스포츠과학 아카데미 성료

<https://www.news1.kr/articles/4841546>

2022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행사 비대면 진행

<https://www.jjan.kr/article/20221024580065>

놀이처럼 즐기는 열 살 신종스포츠...건강 유지, 평생 운동 발판 [김종석의 굿샷 라이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3/116102650/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